

# 여순사건과 4월혁명, 혹은 김승옥 문학의 시공간 정치학

— 반공과 자유주의의 길항 관계를 중심으로 —

김미란\*

1. 들어가면서 : “반체제분자의 자식”과 반공/검열
2. 방법론 정립을 위한 예비적 고찰: 김승옥, 여순사건, 4월혁명
3. 김승옥의 여수·순천 표상 방식 - 고향의 시공간 정치학
4. 「건」의 성장 서사와 이념에 오염된 여순 표상의 해체
5. 마치면서

## 국문요약

김승옥은 여순사건으로 ‘공산주의에 오염된 반란의 공간’이 된 순천과 여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이 지역을 자신의 문학적 공간으로 자주 선택하되 특정한 방향에서 이를 표상함으로써 그 재현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내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반공과 검열에 의해 강요된 의미화 방식과 텍스트에 새겨진 의미(의미된 것) 사이의 모순과 긴장 혹은 양자간의 타협 방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맥락 읽기를 하면서, 김승옥 문학의 시공간 정치학을 순천과 여수의 부정적 이미지를 순치하고자 한 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작가의 여순사건 체험뿐만 아니라 한국전쟁과 4월혁명 등과 같은 다른 역사적 사건들을 비롯해서 그를 둘러싼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까지 고려하였다. 그 결과 알게 된 것은 김승옥의 텍스트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라 정치가 문화론적 차원으로 전환되면서 역사가 진공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위이다. 이는 반공 논리와 자유주의 정치학이 접합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김승옥의 자유주의가 반공 논리와 대립각을 세울 만큼 날카롭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이 점은 역사와 이념을 제거하는 작가의 서사 전략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주의 정치학에 고유한 것인 동시에 작가의 자기 검열과 그에 대한 타협의 산

---

\* 연세대 강사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반공, 검열, 자유주의, 여순사건, 한국전쟁, 4월혁명, 여수, 순천, 고향, 시공간 정치학)

## 1. 들어가면서 : “반체제분자의 자식”과 반공/검열

반공과 검열이라는 주제로 60년대 문학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암묵적으로 허용된 근래에 와서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제대로 다룰 수 없었던 주제에 접근함으로써 거둔 성과는 의미 깊다.<sup>1)</sup> 그러나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검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를 작용(검열)과 반작용(순응/저항)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재단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검열을 둘러싼 검열자와 피검열자의 상호관계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 특히 검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열 효과의 다양한 맥락”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sup>2)</sup>

김승옥 문학에 대한 그간의 연구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김승옥 문학에 관한 연구물이 그렇게 오랫동안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의 검열 효과를 중심으로 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sup>3)</sup> 이유는

- 
- 1) 『상허학보』 제15집(2005.8.)의 「특집: 반공주의와 한국문학」과 김진기 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의 근대적 동학』(한울아카데미, 2008.)이 그에 해당한다.
  - 2) 이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 제15집, 2005.8., 53쪽. 그렇지만 이를 지적한 이봉범 역시 검열 효과의 다양한 맥락에 천착하는 일을 후일의 과제로 기약하고 있다.
  - 3) 유입하의 「마음의 검열관, 반공주의와 작가의 자기 검열 - 김승옥의 경우」(『상허학보』 제15집, 2005.8.)가 유일한 연구이다. 그는 반공주의라는 규율장치와 문학의 중층적인 연관을 살피겠다는 전제하에 김승옥을 사례로 삼아 자기검열을 통한 아버지의 부재처리가 어떤 미적 특성을 획득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김승옥 문학에 대한 연구들을 반공과 검열의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결과적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승인하는 데 머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무엇보다 김승옥의 문학이 통상적인 의미의 반공주의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실은 김승옥 스스로 검열에 관해 간헐적으로 속내를 비친 일이 있다. 그는 소설 쓰는 일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글을 썼다가 당국에 걸리는 게 아닐까」하는, 참으로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걱정이 있다.”, “당국의 어떤 오해에 의한 어떤 사태를 예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것이다. 당국이라고 반드시 실수를 저지르거나 오해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던 것이다. 작가의 진술에서 우리는 글을 쓸 때마다 그가 항상 검열에 대한 두려움과 조바심을 강도 높게 느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그리고 이 두려움과 조바심이 아버지와 삼촌이 연루된 여순사건(1948.10.19.~10.27.)의 경험에서 생겨난 것임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sup>5)</sup> 국가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오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정은 “여순사건 이후 집안에 대한 감시가 심”했던 “반체제분자의 자식”<sup>6)</sup>으로서 살면서 오랫동안 그가 이를 직접적인 발언으로

- 
- 4) 실제로 김승옥은 1980년 신군부의 검열로 「먼지의 방」, 일부를 삭제당한 경향이 있다.(『김승옥 소설전집』2, 문학동네, 1995, 286쪽.) 전후 맥락으로 보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선포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는 대목이 검열로 삭제된 것이라 짐작된다. 이 소설은 김승옥 문학에서는 흔하지 않게 한국정치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그는 소암선생을 공산주의와 독재를 모두 혐오하는 인물로 그림으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 5) 여순사건 진압이 시작될 때 반군의 지도부와 주력부대, 적극적인 협력자들은 주변 산악지대로 입산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진압군은 민간인을 진압 대상으로 삼는 초토화 작전을 펼쳤다. 이때 양민들은 부역자로 몰려 무차별적으로 학살되었다. 이 경험은 김승옥을 포함한 여수·순천 지역민들이 이제 막 건국된 대한민국의 비합리성과 폭력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 6) 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최원식·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42쪽. 김승옥은 이 좌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암시로만 그쳤던 가족사와 좌익이었던 아버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게 된다. 여기서 그는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난 순천지방에서 성장해서 그런지, 아까 임형(임현영)도 집안에 좌익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도 집안에 그런 분이 계셔서 피해다니고 도망다니기 기억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좌익적 분위기라는 게 싫은 느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대목에서 그가 “여순반란사건”이라는 이승만

든 텍스트를 통해서든 거론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여수와 순천을 문학적 공간으로 자주 선택하면서도 여순사건은 텍스트 내에 은폐되어 있거나 삭제되었던 것이다. 이를 반공적 검열을 의식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는 지나친 것이 아닐 터이다.<sup>7)</sup>

그런 의미에서 반공법 제4조 1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로 7년을 구형 받은 남정현의 「분지」 필화사건(1965) 이후의 김승옥의 발언이 눈에 뜨인다.<sup>8)</sup> 검열로 인해 당국과 문학인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던 이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을 여전히 쓰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김병익이 이를 여수 순천사건으로 바꾸면서 그의 말에 응답해도 김승옥은 ‘반란’이라는 표현을 계속 유지한다.(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최원식·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41쪽.) 이것은 자신을 반란의 희생자로 여기고 싶어하는 심리의 반영이다.

한편, 아버지와 여순사건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술은 2005년도에 김승옥 문학 연구자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이루어진다. “아버지는, 1948년 여순사건 과정에 좌익으로 참가, 결국 입산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친 빨치산이었다.”(백문인 외, 『르네상스인 김승옥』, 앨피, 2005, 328-329쪽.)는 고백은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야 겨우 가능해지는 것이다.

- 7) 이는 당시의 작가들보다 순천 출신인 김승옥(서정인도 포함하여)의 경우 더 심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순사건이 벌어진 후 여수와 순천의 시인들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서 자신들은 희생자에 불과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 침묵했다. 1990년대 전후에야 비로소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조심스러운 재조명작업이 이루어진다.(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2』, 실천문화사, 1991, 162-163쪽 참고) 이를 염두에 둘 때 김승옥과 서정인에게도 여순사건은 강한 자기 검열을 행하게 한 금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인이 침묵을 지키는 방식을 택한 것이나, 김승옥이 여수와 순천 지역의 표상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방식을 택한 것은 모두 여순의 정치성을 삭제하는 행위이며 이는 금기를 의식한 자기 검열의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 8) 당시 남한 사회는 단정 수립 후 남로당을 포함한 좌익 척결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과 군사쿠데타 세력이 1961년 7월에 공포한 <반공법>에 의해 반정부적인 표현 일체와 활동이 원천 봉쇄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분지」가 발표된 1965년은 한일협정, 월남파병, 위수령 발동 등을 반대하는 쫓겨대회와 집회가 끊이지 않았으며, 정국이 요동쳤던 이 해를 기점으로 반공주의와 문학의 갈등은 매우 날카로워졌다. 1965년에 남정현뿐만 아니라 구상의 「수치」(희곡)와 김정옥의 「송아지」(방송대본)가 ‘용공 이적’ 작품으로 판정받는 등 필화사

시기에 그는 검열에 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필화사건이 벌어진 후 한 신문사에서 문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심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찬성자 조연현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인들이 심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반해 김승옥은 다소 감정적으로 심의를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그는 “모든 것은 작가의 양식에 몰어볼 문제이지만”,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최소한도의 심의는 불가피하”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작은 일 때문에 큰 것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주변의 소동 때문에 전체 작가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노출한다.<sup>9)</sup> 이 피해의식과 불안감은 “최소한도의 심의”를 의식하는 그를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았을 터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의 피해의식과 불안감이 텍스트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되어 있는지, 이를 통해 형성되는 텍스트의 미적 구조는 어떤 특질을 띠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이는 김승옥의 소설에서 그간 다루어지지 않은 반공과 검열의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김승옥 문학에서 그간 거의 검토되지 못했던 반공과 검열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는 것이 텍스트에서 반공적 요소를 일일이 찾아내는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열이란 특정한 언어적 코드를 위반하는 것을 지적해내고 또 그것을 억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던 어떠한 심급에서의 법적 절차가 아니라, 표현에의 접근 통로와 표현 형태를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표현을 지배하는 장(field)의 구조 자체<sup>10)</sup>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

건이 잇달아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던 것이다.(양진오, 『필화의 논리와 그 문학적 의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의 근대적 동학1』, 한울아카데미, 2008, 332-335쪽, 347쪽 참조.)

9) 『문학작품의 심의』, 『서울신문』, 1967.5.23., 8면.

10) 삐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옮김,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228-229쪽.

점에서 부르디외 식으로 말한다면 모든 텍스트들은 담론이 생성되고 순환하는 구조에 의해 구성되는 검열과의 타협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 타협은 텍스트에 형식을 부과하는 전략들의 산물이다. 말하자면 텍스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표현에 형태를 부과하는 감각과 표현형식에 대한 검열의 산물인 셈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훑으며 검열에의 순응/위반을 추려내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검열이 텍스트의 형식화 과정에 개입해 생성해낸 미적 산물, 이를테면 1960년대 전후라는 시기에 표현을 지배하는 장이 이 시대 문학의 특수한 구성 방식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김승옥 문학의 한 측면이 충실히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 2. 방법론 정립을 위한 예비적 고찰: 김승옥, 여순사건, 4월혁명

주지하다시피 김승옥의 소설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발생한 한국사의 중요 사건이 개인사와 미묘처럼 뒤얽힌 채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텍스트들은 반공과 검열이라는 단일한 해석틀이 아닌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해석틀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김승옥 소설의 특질을 반공과 검열만을 중심으로 포착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컨대 그는 어린 시절 좌익인 아버지와 삼촌이 연루되어 삶이 밑바닥부터 뒤흔들린 여순사건을 경험했지만, 이는 소설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서사 전개에 중요한 배후로 군건하게 자리잡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경험은 한국전쟁,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습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4월혁명과 한국의 근대화, '4·19세대'의 세대론적 인정투쟁과 주체 의식, 대도시 서울에 대한 열패감과 귀향의식 같은 다른 체험들과 감각에 끼어들어가 있다. 또한 이 여러 체험이 작가 고유의 상상력에 힘입어 합

성되고 굴절되면서 텍스트 내에 독자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까닭에 그의 소설은 반공주의나 검열이라는 틀만으로 가볍게 독해해버리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한다.

그가 한국전쟁을 회상하는 방식만 보아도 이는 쉽게 확인된다. 작가에 따르면 “내가 자란 호남지방에서는 「6·25」란 조수(潮水)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죽고 집들이 폭격당하고 했지만 주민 대부분의 생활방식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sup>11)</sup> 하지만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 읽었던 잡지나 만화, 소설은 “온통 끔찍한 전쟁경험담, 피난지에서의 절망적인 생활경험담으로 가득 차 있”어 “비교적 변화없이 6·25를 치르는 나에게 기묘한 콤플렉스를 형성시켜 주었다.”<sup>12)</sup>는 것이다. 전쟁을 전쟁답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콤플렉스는 한반도의 최남단 지역 출신이라는 콤플렉스에 다름 아니며, 서울대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이는 더욱 강화된다. 대도시 출신의 학생들 앞에서 그가 느낀 지방 출신, 그것도 “설상가상 하와이(전라도) 출신”<sup>13)</sup>이라는 콤플렉스는 4월혁명을 겪고서야 비로소 해소된다. 혁명은 그에게 대학생 모두를 동질적인 존재로 만든 계기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11) 한국전쟁 기간 중 여수·순천 지역에서는 여순사건 때와 같은 학생과 부녀자들의 활동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은인자중하는 것이 보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피해의식으로 대변되는 이같은 성향은 정치사회적 변혁들에 극히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는 시민의식으로 나타나 오늘날까지 사건의 중심을 외면하거나 관망하는 성향이 강하다.(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2』, 실천문화사, 1991, 236-242쪽 참고)

12) 김승옥, 「산문시대 이야기」, 『뜬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213-214쪽. 이와 달리 같은 ‘남도’ 출신 작가 이청준은 「소문의 벽」에서처럼 전쟁의 경험을 ‘전깃불’의 공포라는 상징으로 인물의 내면에 또렷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작가들이 체험에 부여하는 의미가 상이함에 따라 서사의 특성이 달라지는 점은 따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김영찬은 이에 대해 “이청준은 그 체험의 역사적 맥락을 치환하여 1960년대의 한국적 근대 현실 속에서 글쓰기 주체가 처한 존재 조건을 극화(劇化)하는 형식으로 바꾸어놓”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김영찬, 『근대의 불안과 모더니즘』, 소명출판, 2006, 98쪽.)

13) 김승옥, 「산문시대 이야기」, 『뜬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208쪽.

지방 출신이 느끼는 문화 감각의 차이가 열패감의 산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사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깨닫게 되는 바, 이는 체험에 대한 사후적 해석의 효과일 터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조작을 바탕으로 하여 그는 196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전쟁과 달리 여순사건의 경험이 그의 소설에서든 수필 같은 다른 형식의 글에서든 좀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를테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식을 원하지 않았던 그는 “수많은 시간의 체가 흔들리는 동안 특히 파란 땅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진취적인 용기와 정열을 가졌던 사람들은 씨도 못 남기고 걸름질당해 버리고 핏줄 속에 악덕을 유지시킨 자들의 자손만이 살아남은 게 아닐까?”하는 강박관념을 줄곧 느꼈다고 고백한다.<sup>14)</sup>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따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천에서 정부 진압군의 대량학살을 경험한 그의 자전적 사실을 통해서만 “씨도 못 남기고 걸름질당해 버”린 “진취적인 용기와 정열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포함해 여순사건으로 학살당한 수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모호한 발언 속에 자신의 여순사건 체험을 틈입시키는 김승옥의 태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잠시 우회하여 그가 4월혁명을 자기 세대의 주체화 동력으로 삼은 ‘4·19 세대 작가’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무렵의 사회와 문단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터이다.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혁명 이후 한국 사회에 기성세대와 청년 세

14) 김승옥, 『아장아장 아기가 달려왔다』, 『뜨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95쪽.

여순사건에 대해 일반인들도 “당시에 활발한 활동을 한 똑똑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필요없는 사람들만이었지요.”(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2』, 실천문화사, 1991, 166쪽.)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이 생각은 여순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일반적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대의 분리를 조장하면서 청년 세대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세대 담론이 1950년대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는 사실이다.<sup>15)</sup> 기성세대의 사회적 죽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면서 청년 세대들을 공적 영역에 진출케 하는 담론들이 무성해질 무렵, 신진 작가와 비평가들도 기성세대의 문학관과 가치관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작업에 착수한다. 가령 김현과 김승옥 등 『산문시대』 동인들은 창간사에서 “투박한 대지에 새로운 거름을 주는 농부”가 되기 위해 “집 나가는 탕자”라는 비유를 차용하면서 스스로 한국문학사의 고아가 될 것을 천명한다. “사일구와 함께, 우선은 문화적 자신감이 거대하게 분출하였다”<sup>16)</sup>는 김현의 평가처럼 이들은 문단을 장악하고 있던 기성세대에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새로운 문학의 추진자로서 자신을 정립한다. 대학에서 이론적 무장을 한 이 신진 문학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은 성찰적 존재인 이성적 개인을 강조하면서 개인 주체를 정립하려는 태도이다. 따라서 이들의 대결 대상은 1950년대 문학의 주조를 이루었다고 판단된 몰개성주의와 비주체성이었기 때문에 문학의 반공적 측면은 아예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한국전쟁에서 충격적인 체험을 한 김치수가 “내 의식의 밑바닥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어 “통일문제에 관한 한 아무리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자 해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고백한 것처럼<sup>17)</sup> 반

15)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미란, 『김승옥 문학의 개인화 전략과 켄더』,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6, 28-32쪽을 참고할 수 있다.

16) 김현,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 『김현문학전집 7』, 문학과지성사, 1992, 239쪽.

17) 김치수, 「자전 에세이」, 『김치수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0, 24쪽. 염무웅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한 적이 있다. “개인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3,40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자주 꾸는 꿈 중의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북한에 와 있는 거예요 아주 큰일났어요 그런 금기의 철조망을 넘어간 꿈을 꾸요 88년(해금) 이후에 학생이 되어서 아무 책이나 읽을 수 있는 사람 들이라면 그런 꿈을 꿀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최원식, 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공 논리가 문학인들의 지적 활동에 장애가 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구체적인 문학적 대결 과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반공주의가 생산적인 논의의 폭을 좁힌다는 것은 당시 신진 문학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였다.<sup>18)</sup>

그런데, 지적 성실성을 바탕으로 신진 비평가와 작가들이 문단의 중심을 장악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1960년대 중후반에 한국반공연맹 기관지 『자유공론』이 창간된다. 『자유공론』은 “역대의 일부 위정자나 정치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반공은, 이제 몇 개의 슬로건이나 표어로서 해결될 관념적인 유희가 아니며, 또한 일부 계층을 위한 정치도구나 만지면 다치는 금기가 돼서도 안된다.”<sup>19)</sup>는 취지를 내세운 “반공이론지”<sup>20)</sup>로 등장한다. 이 반공지에는 김동리, 서정주, 박두진, 김송현 등의 반공주의적 작품과 비평뿐만 아니라 김승옥과 이청준, 김현, 김병익, 김치수 등의 작품이나 평론들도 다수 실려 있다.<sup>21)</sup> 하지만 신진 문학가들의 입장과 유사

2002, 66쪽.)

18) 예컨대 김병익이 “우리나라 지식세대 중에 제일 불행한 세대가 김봉구 선생 세대”이며 “그 세대의 의식에는 근원적으로 반공주의가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어 현실참여문학에 비판적이나, “그런 상처나 콤플렉스 없이 성장한 세대인 4·19세대”는 자유와 평등, 진보와 보수라는 두 이념과 “상보적이든 경쟁적이든” “대결”할 수 있었다는 회고에서도 반공주의에 거리를 두는 ‘4·19세대’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최원식. 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58-59쪽.)

또한 『산문시대』의 등장에 자극받아 야심차게 『비평작업』을 발간한 조동일, 임중빈 등의 발언도 이와 관련했을 때 주목되는 면이 있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비판과 거부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1950년대 비평가, 작가들과 달리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닌 사상적 대결을 통한 주체적 판단의 중요성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비평작업』 창간호(1963.1.)에 실린 인생과 무대는 어디로-현대문학지 또는 조연현씨 앞에, 와 「어떤 때. 인텔리의 비극. 이어령 씨에게 붙인다」 참조) 이는 맹목적인 반공주의를 넘어섬으로써 논의의 폭을 넓히려는 생산적인 작업의 일환이다.

- 19) 김정렬(한국반공연맹 이사장), 「창간사」, 『자유공론』 창간호, 1966.4., 27쪽.  
 20) 「『자유공론지』 창간을 축하함」, 『자유공론』 창간호, 1966.4., 28쪽.  
 21) 김승옥, 「염소는 힘이 세다」(1966.4.(창간호)), 이청준, 「등산기」(1967.2), 박태순, 「뜨거운 물」(1967.6.), 최인훈, 「가면이야기」(1967.9.), 김수영, 「미농인찰지」(1967.9.), 이제하, 「파조압충(破鳥壓蟲)」(1967.12.), 김현, 「한국문학은 붕

하게 『자유공론』이 그동안의 조잡하고 협소한 반공 논리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이론적인 모색을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인지 문인들의 글이 반드시 반공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는 않다. 가령 김치수는 오히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반공의 내포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용어를 재전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는 「소설에서 나타난 반공의식」에서 1950년대의 반공적 소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와중에 선우회의 「불꽃」에 대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비극을 공산세계의 잔악상을 되새기면서 반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할 “교훈적인 소설”이라고 논평하면서 “반공의식에 있어서 교재감이 될 만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를 체험하지 않은 세대는 공산주의의 이상론에 대비할 만한 힘을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치수에 의하면 1950년대 소설과 달리 “이제 소설에 나타난 반공 의식도 새로운 양상을 띠고 변모해야” 한다. 말하자면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직접적인 반공과 상관 없이 그들 자신의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에 깊이 천착하고 있”는 1960년대의 작가들은 “또 하나의 반공적 요소를 담고 하나의 좋은 작품을 만들려는 작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적극성을 찾을 수도 없고 떨 수도 없”지만 “소설에 있어서 이 이상의 반공 의식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sup>22)</sup>

여기서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공주의에 대한 신념을 적극적으로

---

피되어가고 있는가 (1966.3.), 김병익, 국내의 공산권연구현황 (1967.8.), 김치수, 「소설에서 나타난 반공의식」(1967.10.) 등 상당수 문인들의 글이 『자유공론』에 실려 있다.

22) 김치수, 「소설에서 나타난 반공의식」, 『자유공론』 제19호, 1967.10, 200-201쪽.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그는 1960년대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이념과 맞지도 않으며 공산주의자가 될 수도 없는 자유주의적이요 개인주의적이요 부르조아적인 것”도 “넓은 의미에서, 특히 소설에서는 (반공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소설이 걸작이 되기 위해서는 반공적이어야 될 이유가 없”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이며 이 사실 자체가 반공적인 것”이라는 것이다.(194-195쪽.)

표명하는 우파적 논자가 아니더라도 이 시기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나 이미 반공적 검열 논리가 비가시적인 실체로 작동하고 있는 반공 국가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김치수의 경우처럼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반공이 재전유됨으로써 의미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양상 역시 주목되어야 한다. 그는 반공 담론 내에서 자유주의 비평가가 벌이는 투쟁의 한 양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김치수는 반공의 도그마 주변에서 걸들면서 그 경계를 침범하고 모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반공의 교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sup>23)</sup> 그렇다면 김승옥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제 작가의 여순사건 재현 문제로 돌아와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1960년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황 안에 놓여 있는 김승옥이 여수와 순천을 자신의 문학적 공간으로 선택할 때 공간의 의미 변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중심으로 논해져야 한다.

여순사건은 이승만정권의 반공체제 강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건이다.<sup>24)</sup>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여순사건이 일어났을 때 친정부적인 언론인과 문인, 종교인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극우반공주의적 논리를 좇아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재현했다. 이들의 재현 작업을 통해 여수와 순천은 대한

23) “<반공>이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은 규정되고 있는 대상인 <공>이 아니라 규정하는 의도인 <반>(금지)이다. 그로 인해 전체주의적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이 <반공>의 이름으로 금지될 수 있다.”(강옥식, 전 체주의적 반공주의와 순수 참여전쟁, 『상허학보』 제15집, 2005.8., 197쪽, 204쪽)는 의견처럼, ‘반공’은 모든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무한한 자기 증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까닭에 김치수식의 방법은 반공 이데올로기 자체를 결코 불식시키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수식의 자유주의적 발상은 반공 담론을 불균질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통상적인 반공 교의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일일 수는 없다.

24) 여순사건의 전말은 김득중의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선인, 2009)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여순사건의 재현 효과에 대한 연구는 임종명의 논문이 대표적이다.(임종명, 여순 ‘반란’ 재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형상화, 『역사비평』 통권64호, 2003. 가을,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 『한국사학보』 제19호, 2005.3.,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2집, 2005.봄.)

민국을 배반하고 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군인과 지역민들에 의해 반국가적인 폭동이 일어난 반란의 도시로 부각된다.<sup>25)</sup> 이들의 활발한 작업에 의해 “인심 좋은 순천은 역천(逆天)되고 산고수려(山高水麗)하다던 여수는 악수(惡水)로” 변모되었던 것이다.<sup>26)</sup> 신문과 책자 등의 매체를 타고 여수와 순천은 순식간에 공산주의에 오염된 공간으로 표상된 채 널리 알려졌고 이는 대중들의 뇌리에 오래 간직된다.

김동리의 단편소설 「형제」(1949)는 이 지역을 재현하는 당대의 대표적인 방식을 보여준다.<sup>27)</sup>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단편은 좌우익의 갈등

25) 여순사건의 진압 직후 문인들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반란실정 문인조사반’을 결성해서 현지에 내려간다. 주로 우익인사와 경찰, 군인들의 사건 해명만을 듣고 서울에 돌아온 이들은 서울에 돌아와 현지 답사기를 써서 서울신문에 게재했고 곧 이 답사기들은 정부가 간행한 『반란과 민족의 각오』(전국문화단체총동맹, 문진문화사, 1949.)에 실리게 된다. 이들의 기록은 철저한 반공적 시각으로 사건을 심각하게 오도한 것이다. 가령 김영랑의 시 「절망」에는 “산채로 살을 깎기여 죽었나이다/산채로 눈을 뿔혀 죽었나이다(32쪽.)” 같은 시구처럼 반란자들이 잔혹하고 야만적인 학살자로 묘사되어 있다.

이와 달리 홍한표의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 12 합본호)나 설국환의 반란 국토를 보고 와서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 12 합본호)는 상대적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쓰면서 진압군의 초토화작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와 극심한 공포감을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이와 같은 글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여순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역민 김낙원은 1953년도 판 『여수향토사』에서 ‘여순반란사건’은 “미증유의 대반란으로서 청사에 씻을수없는 과오”라고 평가하고, “소수불온병사”가 주동하고 그에 “부화뇌동”한 군중의 “망동”으로 해석한다.(김낙원, 『여수향토사』, 여수시교육청, 1953, 44-45쪽.) 또한 “숫까지 대항”하다 “전원순국”한 경찰과 “격전 끝에 완전탈환에 성공”한 군대를 살인마인 반란자와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방식으로 반란자들의 반국가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수 시민들조차도 자신의 체험을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에 맞추어야 할 만큼 경직되어 있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김낙원이 1962년에 개정판을 내어 ‘여순반란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은 4월혁명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크게 바뀐에 따라 사건의 재조명이 충분히 가능해졌기 때문이다.(김낙원, 『여수향토사』, 여수문화원, 1962. 참조.)

26) 김사림 편저, 『일선기자의 고백』, 모던출판사, 1949, 88쪽.

을 형과 아우의 혈연적 관계가 붕괴되는 과정으로 재현한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의 비윤리성이 극단적으로 강조되고 우익의 인간성이 부각되면서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표출된다. 물론 여순사건 당시 시민들이 진압군들에게 당한 무차별적인 학살을 정공법으로 다룬 소설 역시 존재한다.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1961)<sup>28)</sup>이 그것으로, 이는 4월혁명을 계기로 보수 우익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다양한 이념과 가치가 쏟아져 나올 수 있었기에 등장 가능했다.

그렇다면 여순사건을 표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로 문학 활동을 한 김승옥은 여수와 순천의 정치적 사건을 삭제하거나 은폐하면서 공간을 재맥락화하는 방식으로 이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순치한 최초의 작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는 여수와 순천을 문학적 공간으로 자주 선택했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공간은 역사의 주체인 4·19세대로서 자신감을 획득한 전라도 최남단 출신의 작가 김승옥이 부여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정치적, 문화적 의미망에 둘러싸여 있다. 즉 여수와 순천은 1960년대의 의미망 안에 자리를 할당받음으로써 의미가 재구성되기 때문에 텍스트에 지정된 위치는 균열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텍스트에 균열을 내며 산포되어 있는 이 공간의 재맥락화 과정을 추적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시 김승옥을 옥죄인 반공과 검열,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27) 김동리, 「형제」, 『백민』 제5권 제2호, 1949.3.

28)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국제문화사, 1963.)은 1961년 한국일보 장편 현상공모 입선작이다. 광주 출신인 전병순은 여순사건 당시 여수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그리고 진압군에 의해 이 학교 교장이자 철저한 우파였던 송옥마저 부역자로 몰려 목숨을 잃는 사건을 목도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작가가 본격적으로 여순사건을 다루게 된 것은 무엇보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의 책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이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순사건을 장편소설로 세밀하게 다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김승옥의 여수·순천 표상 방식- 고향의 시공간 정치학

김승옥의 소설 중 여수와 순천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작품은 「환상수첩」(1962 : 순천), 「생명연습」(1962 : 여수), 「건」(1962 : 순천),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1963 : 순천), 「무진기행」(1964 : 순천), 「내가 흠친 여름」(1966 : 여수), 「재롱이」(1968 : 순천으로 짐작됨)이다. 여수와 순천이 그의 대표작 대부분의 공간적 배경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하는 일이다. 그 중 「환상수첩」, 「생명연습」,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하 누이)」에서는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소도시 여수와 순천이 정치적 긴장의 장소가 아닌 고향이라는 문화적 장소 차원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세 작품을 중심으로 문화적 차원에서의 김승옥의 공간 재현 전략을 살펴 그가 생산해낸 이 지역에 대한 특정한 인식과 표상 방식을 검토해 볼 것이다.<sup>29)</sup>

그런데 바흐찐이 일찍이 크로노토프(chronotope)라는 개념으로 시공간의 분리불가능성 혹은 시공간의 내적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것처럼, 공간의 재현 양상을 고찰할 때 시간성의 차원이 도외시될 수는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프라트가 공간을 바라보는 눈은 전망(시간성)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듯이<sup>30)</sup> 김승옥 문학의 공간 재현 방식은 작가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거와 현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함)과 분리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공간에 대한 김승옥의 특정한 인식과 표상

29) 지금까지 여수와 순천을 고향이라는 문화적 장소 차원에서 재현하는 것이 갖는 함의를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도작가’인 김승옥의 문화적 공간이 지닌 특질을 구명하려는 시도도 존재하나(전홍남, 이대규, ‘남도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고향탐색과 공간화 전략, 『어문연구』 제52집, 2006.12.), 이 역시 기존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에서 고향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30)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 Routledge, 1992, p.29.

방식은 텍스트에 내장된 시공간적 장치에 각인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은 그의 시공간 정치학까지 포괄해야 정치해질 터이다.<sup>31)</sup>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면, 김승옥의 여수와 순천에 대한 문화적 장소 차원의 표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고향과 전쟁(역사), 고향과 서울(도시)을 상호 관계시키는 방식이 그것이다. 먼저 위 세 작품에 드러나는 고향과 전쟁(역사)의 관계 설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 3-1. 고향과 전쟁 표상에 새겨진 자유주의 문화정치학

「생명연습」에서 여수는 전쟁 중에 있지만, “전선에서는 펍 먼 국토 최남단의 항구여선지 인민군이 남겨놓고 간 자취”는 “비교적 빨리 지워”진다. “피난갔던 사람들도 거의 돌아와서, 폭격맞은 집터에 판자집을 세우고, “동란발발 전의 생업을 다시 계속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거리는 “피난민들로 떠들썩했고” “사람들은 대부분 구호물자를 배급해주는 교회엘 부지런히 다니고 있었다.”

여수에 대한 나의 회상은 이처럼 여수 시내 전체의 재건 분위기를 짧게 기억해내는 데서 시작된다. 이 짙막한 서두를 이으면서 서사의 중심에 떠오르는 것은 생활의 재건 현장이 아닌, 어머니, 형, 누나와 내가 서로 이해하지도 소통하지도 못했던 판잣집과 저마다 홀로 바라보았던 바다이다. 말하자면 텍스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재건을 서두르는 전쟁 중의 여수라기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 개별화되는 사태이다. 그리고 형의 ‘자기 세계’가 판잣집의 다락방과 바다로 응축되듯,

31) 그래서 시공간적 장치 분석은 작품에 대한 내재적 접근뿐만 아니라 외부의 참조항도 고려하는 맥락적 읽기를 요청한다. 물론 이는 텍스트의 재현 양상을 실제 사실과 단순 비교하여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서사에 밀착하여 그 구조적 효과를 살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여수는 무엇보다 형의 공간을 통해 현시된다. 그런 점에서 「생명연습」에서 전쟁 중의 여수는 무엇보다 “자기 세계”의 정립을 위한 외적 계기이다. 이는 내면 즉 주관성의 형식 안으로 들어와 내적 투쟁을 자극한다.<sup>32)</sup>

전쟁 중의 고향은 이처럼 판잣집과 바다의 표상을 중심으로 형상을 얻기 때문에 ‘전쟁 중의 고향- 바다- 자기 세계’는 의미 연쇄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바다 표상은 「생명연습」에서 두 가지 대립적인 측면으로 분할되어 나타나며, 그중 하나는 나와 누나의 바다이고 다른 하나는 형의 바다이다. 비밀왕국에 거주하는 나와 누나의 바다와 자기 세계에 갇힌 형의 바다는 매우 이질적이다. 가령 나와 누나는 비밀 왕국에서 “금속처럼 차게 빛나는 해면을 바라보며 한참씩 서 있곤 했”고 “그럴 때야 비로소 나는 어린 가슴에 찾아오는 평안을 느”낀다. 하지만, 형은 “하다못해 유행가 가수라도 되겠다고 새벽과 저녁으로 바닷가를 헤매며 소리를 지르”다가 “폐가 나빠져서 중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고 마침내는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죽”기에 이른다. 전자가 인간과 자연이 통합되는 공간으로서의 바다라면, 후자는 개별자들이 자기를 찾아 헤매는 장소로서의 바다인 셈이다. 그런데 형이 죽은 뒤 서울에서 성장한 나는 영수와 함께 “방학만 되면 (여수에) 내려가” 형이 헤매던 그 “바닷가를 헤매”며, 이 역시 자기 탐색과 발견의 장소로서의 바다 표상을 강화시킨다. 마찬가지로 「환상수첩」의 바다는 자기 탐색에 나선 젊은이들이 실패를 겪게 될 때 자신의 육신을 묻는 곳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박종길 선생이 바다에 생매장당하거나 바닷길을 따라 거문도로 끌려가 죽은 사람들의 바다를 보며 김득중에

32) 「생명연습」에서 강조하는 ‘자기세계’는 자기 자신과의, “번득이는”, “눈 뜰 수 없는”, “끈덕진”, “마음을 쥐어짜는” 처절한 내적 투쟁을 거침으로써만 형성되는 세계이다. 그리고 바로 이 내적 투쟁이라는 삶의 형식이 서로 다른 이들을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들로 함께 묶어 주는 유력한 공통분모이다. 내적 투쟁이라는 주관성의 형식이 이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 가능하게 하며 각자는 이를 통해 개별적 존재인 개인이 된다.(김미란, 『김승옥 문학의 개인화 전략과 쉼터』,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6, 111쪽.)

게 “여순사건 때 돌아가신 수많은 혼령들이 당신을 보살펴줄 것”이라고 한,<sup>33)</sup>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바다와는 전혀 다른 바다 표상이다.

그렇지만 작가의 표상 작업 역시 여수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역사적 과정의 일부이다. 때문에 텍스트에서 장소와 역사의 재전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전망에 대한 정치적 독법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생명연습」에서 형의 “자기 세계”와 “나와 누나가 만드는 비밀왕국”인 “화사한 “왕국”의 대비에서 가장 잘 확인된다. “비밀왕국”이란 나와 누나가 애란인 선교사의 수을 장면을 훑쳐보면서 이를 “한 오라기의 죄도 섞여 있지 않은”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문명의 세계이다. 작가가 이상적인 사회로 꿈꾸는 것은 이처럼 “소금기”와 “사그락대는 나뭇잎”, “머리칼을 나부끼는 바람”과 “때때로 따카운 빛을 쏘는 태양”이 있는 자연의 공간이자, “쾌륜”과 “고독”이 있고 “전쟁”마저 벌어지는 “자기 세계”와는 대조되는 “화사한 왕국”인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가 순전한 자연물로 표상되듯이, 김승옥의 문화론적인 삶의 전망은 문명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회귀했을 때, 달리 말하면 역사를 초월했을 때에야 가능하다. 문명은 문명이 아닌 자연과 일체를 이루는 방식으로만 지탱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화사한 왕국”은 현실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여기서 그가 타협안으로 내놓는 것은 자유주의적 전망에 따른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공산주의와 달리 자율성이 보장되어 무엇이든 자기 선택이 가능한 사회이다.<sup>34)</sup> 자유주의적 신념에 따라 고안된 김승옥의 내적 투쟁의 세계 곧 형과 영수

33)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22쪽.

34) 김승옥은 「좌담」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자율성의 확보라는 점이고 이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4·19는 우리 체제 내부에서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는 역사적인 경험”으로서 중요하다고 고평하는 반면, “좌파는 선택의 폭을 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최원식 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67쪽.)

등의 ‘자기 세계’는 선택의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에서 신장시킬 수 있는 자아의 한 면모를 예시한다.

이로 인해 전쟁 혹은 전쟁이 일어난 고향은, 사사화(私事化)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사의 배후로 밀려나 개인의 자기 정립 과정에 달라붙음으로써 주체 구성의 문제에 연루된다. 김동리나 전병순의 소설에서 여수는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된 정치적 공간이었다면, 김승옥에 와서 이는 주체의 내면을 표상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전위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 존재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장소로 바뀔 때 따라 여수는 그 민감한 정치성에서 비껴나 있게 된다.

한편, 가족이 개별화되는 요인 중 하나인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측면도 전쟁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방종한 사생활은 전쟁의 영향 탓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텍스트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즉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인 1941년경에 사망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의 부재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다가왔겠지만 말이다. 또한 어머니가 사내를 집에 끌어들이기 시작한 시기는 “형을 따라 새벽에 해변엘 나간 적이 있는 그 무렵”인 1947년이다. 게다가 이는 피난지에서 돌아와서부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변화는 여수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과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의미가 개인사와 가족사로 한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인물들과 전쟁(역사)을 직접적으로 관련시키지 않으려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정치적 긴장의 장소였던 현실의 여수는 텍스트의 여수 표상과 시공간적으로 충돌하면서 붕괴의 위협에 직면한다. 달리 말하면 여수는 김승옥에 와서 문학적·문화적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여수가 보편적인 공간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한다. 김승옥의 텍스트에서 전쟁은 가족 구성

원마저도 개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는 여수의 특수한 사정이 아닌 전쟁을 경험한 한반도의 보편적 조건이다. 김승옥 문학에 나타난 여수 표상이 개인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시공간 정치학에 구속됨에 따라 여수는 특수한 공간에서 보편적 공간으로 형질 변환되는 것이다.<sup>35)</sup> 즉 역사적 사건은 사적인 영역을 통과하면서 보편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자유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이 방식은 정치적 사건들을 역사에서 떼어내 사회문화사의 영역에 위치 짓게 만든다. 이는 작가의 통찰력이 공동체 내부가 아닌 개인에게로 향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로써 여수는 지역민의 고향이 아닌 개인의 가치에 큰 의미를 두는 모든 자유주의자들의 고향으로 재탄생한다.

### 3-2. 고향과 도시 표상을 통한 순천의 재발견

김승옥의 소설에서 고향은 서울의 도시인에게 “생전 이름도 들어 보지 못한 시골”(「누이」)이며 서울에서의 생활을 “다 그만두고 박혀 있”기 적합한 시골(「환상수첩」)인 동시에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도시(「환상수첩」)”이다. 고향을 재현하는 이와 같은 방식 역시 순천을 기왕의 정치적 공간에서 보편적인 근대적 공간으로 전환시키려는 작가의 서사 전략에 따른 것이다.<sup>36)</sup>

말하자면 텍스트에서 고향은 시골/도시의 이중 표상을 통해 정치적 오명의 낙인이 찍힌 공간이 아닌 근대화에 연루된 공간으로 재맥락화된다.

35) 여수와 순천이 특수한 공간성 혹은 지방성을 상실하고 도처에 있는 보편적인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진기행」의 실재하지 않은 공간 ‘무진’의 등장을 예견한다. 무진이 전라남도 순천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승옥의 소설에서 이를 밝히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김훈이 무진을 “지도 위의 어느 곳순천 - 인용자도 아니면서도 도처에 널려 있는 도시”라고 쓸 때 그는 이미 김승옥의 재현 전략 안에서 무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김훈, 『문학기행』, 한국일보사, 1987, 26쪽.)

36) 도시/고향의 표상 방식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으므로, 이 장에서는 논의의 중복이라는 인상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제시할 것이다.

고향의 시골 표상은 고향을 자연에 근접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고향은 ‘황혼’, ‘해풍’, ‘강’, ‘강둑’, ‘논두렁’, ‘바다’ 등의 자연물로 등장하거나, “우리 앞에서 지상을 포옹하고 있는 자연 현상들에게” 누이의 평안을 빌 수 있는(「누이」), 인간의 삶보다 우월한 가치의 저장소로 재현된다. 또한 텍스트에서 고향은, “아직도 신비한 힘을 보여주는 자연 속에서” “누이로 하여금 도시의 모든 기억을 토해버리게” 하고 “해풍으로 목욕시켜 “숲속의 짐승들이 감각만으로써 살아갈 수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고 싶은 곳, 이를테면 자연의 삶과 인간의 삶이 통합되고 일체화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무의미한 자연의 세계, 즉 고향을 침해하는 주범은 근대화이다. 현실의 고향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여순사건으로 인해 공동체가 와해되었고 그 여파는 오래갔지만, 작가는 추석 명절에 고향 사람들이 “제사지내고 성묘 다니기가 바”뽐 뿐 서로 왕래가 거의 없는 것이나 고향 친구들이 자살하는 것을 다만 근대화의 폐해로만 해석하려 애쓴다.<sup>37)</sup> 마찬가지로 그의 소설에서 고향은 개인이 완전히 소멸되어 자연의 일부를 이루는 곳이자 근대적 개인이 거주하는 도시와 철저히 대비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근대화에 연관되어서만 의미가 획득된다.

그런데 하향한 젊은이들이 고향마저 누이를 “할퀴고” “빨아먹고” “찢”는 동물적 공격성으로 가득 찬 도시(『누이』)로 변했음을 깨닫게 되며, 이는 윤수에게서 “내가 피해온 저 오염빈의 세계가 되살아오는 듯”(「환상수첩」)하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 오염빈이나 윤수처럼 개인으로 분화된 존재들이 있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지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순천은 “도회를 떠난다 해도 이미 갈 곳”이 없는, 즉 개인화의 진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서로 어울려 시간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37) 김승옥, 『뜬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1997, 122쪽, 150쪽 참조

거듭난다. 이처럼 「환상수첩」의 고향은 네 젊은이들을 통해서 재발견되며, 이로써 순천은 젊은이들의 내적 갈등이 표출되는 장소이자 서울에서의 갈등이 연속되는 공간으로 재현된다. 순천은 귀환과 상경의 이율배반적 욕망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의 오뇌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김승옥이 순천에서 실제로 겪은 유년의 체험(여순사건)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면, 이와 달리 소설 속의 인물들은 고향이 아닌 도시에서, 혹은 이미 도시가 된 고향에서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계기를 만난다. 그래서 「생명연습」에서 여수는 ‘자기 세계’를 지닌 인물들의 위태롭고 불안한 내면 형성의 공간이지만, 이는 여수의 지역적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듯이 「누이」와 「환상수첩」에서 순천이 재현되는 방식도 그와 동일하다.<sup>38)</sup> 요컨대, 도시/고향의 이중 표상을 통해 순천 역시 여수처럼 근대적 청년들의 보편적인 고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고향)과 도시라는 친숙한 대비 구조를 동원하여 순천을 재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문화적 공간이자 문화적 공간으로서 순천을 탄생시키는 문학사의 한 장면에 해당한다.

#### 4. 「건」의 성장 서사와 이념에 오염된 여순 표상의 해체

「생명연습」 등에서는 전쟁(역사)이 서사의 배후로 밀려나 있지만, 「건」

38) 이후 김승옥이 고향 풍경과 역사를 잇는 문화적 작업의 가치에 공감하게 되는 것은 김지하의 시집 『황토』를 만나면서이다. 그는 시집의 발문에 “이 시들을 읽는 동안 내 눈앞에 고향의 풍경들이 어른거렸고 그 풍경들이 새로운 의미로 어른거렸다.”고 쓴다. 황토가 “원한 많고 눈물 많았던 선조들의 피와 살과 뼈의 더미라는 것, 그 피와 살과 뼈의 더미 위를 오늘도, 그들 선조들의 것만큼이나 큰 원한과 눈물을 안은 처녀가 터벅터벌 걸어가고 있다는 것, 남도의 뜨거운 태양, 질기고 뻗센 쑥, 탕자나무 가지, 땀비꽃들이 더 이상 자연의 현상들이 아니고 불행한 역사 속에서 죽은 이들의 고통의 신음과 슬픔의 통곡의 형상”이라는 깨달음을 적고 있는 것이다.(김승옥, 그것은 울음이다- 김지하 시집 《황토》 발문, 『뜨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190쪽.)

에서는 전쟁이 서사의 중심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반공 논리에 침윤된 기존의 여수 표상 방식이 뒤엎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합하게 얽혀 있는 서사의 틈 안에 반공과 자유주의적 발상이 미묘하게 공존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전쟁과 4월혁명 전후 한국 사회의 재편을 경험한 김승옥의 시대감각이 텍스트에 혼재되어 있는 탓에 발생하는 것이다. 작가의 이 혼재된 감각은 특히 빨치산의 죽음을 에워싸고 있는 다양한 서사 장치들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난다.

먼저 우리는 빨치산의 시체를 대하는 지역민들의 태도에서 순천 지역 공동체가 이념적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부가 제법 안정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이는 실제와는 다른 안정감이다. 여순사건에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좌우 이념의 대립과 무차별 살상으로 인해 지역민 사이에 형성된 적대감 대신, 안정감이 텍스트의 지배적인 정조를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지역민들간의 갈등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sup>39)</sup> 지역민들은 “빨갱이 시체 구경”을 하러 몰려나오거나, 시당국과 동회의 요청에 따라 약간의 보수를 받고 시체를 파묻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매관 일을 주선한 반장은 빨치산의 고모인 노파에게 “이분이 파묻어주시기로 됐습니다.”라며 예의를 다하며, 입회순경은 작업을 곁에서 지켜볼 뿐 아무런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비록 “빨치산들의 습격”으로 “방위대 본부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오르고 있”지만 사람들이 전혀 불안이나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데다 생활의 활기마저 풍기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수를 비이념적인 공간으로 구조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39) 이와는 달리 재룡이에서는 지역민의 갈등과 공동체의 파괴가 전면화되어 있다. 그러나 재룡이에서 드러나는 극도의 적대감 및 긴장감은 건의 안정감과 표리관계에 있을 따름이다. 이는 곧 이념에 대한 작가의 동일한 인식의 양 측면이다. 김승옥이 재룡이에서 이념과의 대결이나 탐색보다는 이념에 의한 인간성의 상실과 공동체의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듯이 건에서는 이념의 ‘폭력적인’ 제거를 통한 ‘가상의 화해’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외중에 빨치산의 시체에 염을 하고 매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빨치산을 포용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가 텍스트 안의 지역 사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실제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빨치산의 죽음을 처리함으로써 부각되는 것은 남한 사회의 인도주의적 면모와 순천 지역 사회의 상대적인 평화로움이다.

경찰과 군대의 이미지가 순화되어 있는 점도 비이념적인 공간 형성에 한몫한다. 경찰과 군대는 모두 순천에 주둔한 국가기구이지만 텍스트의 외곽에서 비가시적으로 움직일 뿐 서사의 진행에 끼어들지는 않는다. “일선의 전투부대나 다름 바 없는 장비와 인원을 가지고 있는” 시방위대는 빨치산의 습격에서 순천을 지키고, 경찰은 빨치산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시민들 앞에서 협조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암시에 그칠 뿐 텍스트의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찰과 군대는 반공 국가를 지탱하는 강력한 통제 기구가 아닌 지역민의 보호자로 이미지가 순치된다. 그리고 이는 텍스트의 배후에서 주요인물인 나와 빨치산의 관계를 받쳐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소년인 나의 눈을 통해 빨치산은 이념으로 묶인 집단의 일원이 아닌 순전한 개인으로 변형되는바, 이는 경찰과 군대가 시민의 보호자 역할에 충실한 안정된 지역 사회가 있기에 가능하다. 여순사건 후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표출했던 ‘반공’ 경찰과 ‘반공’ 군대<sup>40)</sup> 같은 국가기구가 「건」에서는 지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의미화되듯, 빨치산도 매우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가 부여된다. 이는 곧 경찰과 군대, 빨치산을 공존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40) 여순사건으로 경찰이 많이 희생됨에 따라 이들은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 좌익에 대한 극에 달한 증오감을 표출하였다. 군대의 경우, 여순사건 후 군대 내 좌익세력이 철저하게 제거됨으로써 국군은 진정한 반공군대로 다시 태어났다.(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116쪽 참조)

공존을 위해 김승옥이 택하는 전략은 빨치산을 시체로만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시체는 이념의 때를 벗긴 자연적 존재라는 점에서 무구(無垢)하다. 그는 소년의 시선을 통해 역사 이전이나 역사 이후에 놓이게 됨으로써 탈시간적인 존재 즉 자연적 존재가 된다. 소년이 본 빨치산의 시체는 더 이상 “탱크를 닳은 괴물도 아니고” “돌덩이처럼 뚱뚱 뭉친 그런 신념덩어리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체를 묻는 일을 맡았을 때 소년이 본 환상은 이념에서 벗어나 몸이 가장 가벼워진 상태, 곧 순수한 인간 정수의 구현체에 해당한다. “시체는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잡된 요소를 바람에 실어 보내버리고 이제야 태어나기 전의 사람, 아니 모든 것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가벼워져서, 마치 병아리의 노오란 한 개의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공중을 나는” 것이다. 역사에서 벗어난 빨치산에 대한 환상은 소년이 그토록 시체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원천을 보여준다. 시체 소유의 욕망은 시체에 생명을 부여해 순수한 물질성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욕구에 다름 아니다.

또한, “마음 한 구석이 따듯해오는” 소년의 저 환상은 이념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빨치산을 개별화하여 공감적인 존재로 변형시키는 장치이다. 여기서 표명되는 것은 소년과 빨치산 사이, 나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비적대적인 관계이다. 이것은 김승옥이 「뜬세상에 살기에」에서 자주 토로하는 인간관계이지만, 「건」이 암시하듯 빨치산의 죽음 혹은 이념의 제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sup>41)</sup>

이와 같이 볼 때 빨치산에게서 이념을 벗겨내는 일은 극단적인 이념 대립의 상황에서 ‘빨갱이’를 민족의 적이자 살인마 혹은 악마로 간주하는 당시의 지배적인 표상 방식<sup>42)</sup>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이념 대립의 상황을

41) 이는 이념에 ‘희생’당한 김승옥의 아버지를 재생시키는 방식이기도 할 것이다.

42) 이에 대해서는 김득중의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선인, 2009.)에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자유주의 담론 안으로 끌어들여 해체하고 재맥락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군대와 경찰이 반공의 보루가 아닌 시민의 보호자로, 빨치산이 순수한 인간으로 텍스트에서 재맥락화되는 과정을 통해 좌우익 이데올로기 대립이 만들어낸 기존의 여순 표상은 해체된다. 여순은 정화되어 이념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면 누구나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경찰과 빨치산을 비롯한 모든 지역민이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서 벗어나 공존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안적 방식이다.

하지만 역사를 제거하여 개인을 구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형들의 강간 음모에 소년이 가담하는 것이다. 「건」에서 형들의 음모에 소년이 동조하는 것은 빨치산의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표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 소년은 성장하여 한국 사회 내부로 휩쓸리는바, 이로 인해 한국사회는 공존이 불가능한 적대적인 사회로 재전략한다. 이 서술 전략에 따라 「건」은 이중적으로 혹은 모순적으로 읽힌다. 4월혁명 이후 한국사회에 자유주의 담론이 득세하게 됨에 따라 김승옥의 텍스트 역시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공주의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점이 그 한 측면이다. 이를 통해 김승옥은 자신의 터부였던 공산주의 이념이나 여순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면서도 강간이라는 반인륜적 방식을 통해 공존의 전망을 취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공주의가 지배하는 현실논리를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한 측면이다. 이는 무엇보다 경찰과 군대로 표상되는 강고한 반공주의적 현실 논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치가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전망을 모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는 “내가 자란 정신적 풍토는 실제로 친척 중의 한 사람은 빨치산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빨치산을 잡아죽여야 하는 경찰이라는 식의, 사상의 황포가 우리의 전통적 인간 관계 위에 군림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하는 곳이었다”<sup>43)</sup>고 진술하지만, 「건」에서는 정치가 소거됨으로써 이 이념적 적

대는 여전히 현실에서 온존한다.

물론 「건」은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반공 민족주의에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에 포박당하지 않은 작품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반공 민족주의 논리로 민족/반민족을 구분하면서 빨치산의 죽음을 해석하지 않는 것은 한국문학사에서 단연 이채롭다. 그러나 반공 논리가 지배하는 한국사회를 문화적, 윤리적 차원으로 다룸으로써 현실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념 자체를 텍스트에서 증발시켜버리는 것은 ‘4·19 세대’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념과의 지적 대결을 피해버리는 행위이다.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점이 김승옥과 같은 ‘4·19 세대’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4·19 세대’ 문학가들의 자유주의는 정치적 이념을 문화적으로 전유하고 재맥락화하면서 인본주의적 전망을 모색해 보는 데 이르지만, 현실 논리의 강력한 힘에 직면했을 때는 항상 예정된 패배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 5. 마치면서

반공과 검열을 중심으로 김승옥의 텍스트를 다시 읽는 행위는 그의 텍스트에 대한 전통적인 독해 방식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독해 방식이 텍스트를 의미 없이 훼손시키는 행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분석을 위한 정당한 방법론이 요청된다. 본고에서는 반공과 검열에 의해 강요된 의미화 방식과 텍스트에 새겨진 의미(의미된 것) 사이의 모순과 긴장 혹은 양자간의 타협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맥락 읽기를 하면서 김승옥 문학의 시공간 정치학을 구명하는 것을 방법으로 선택하였다.

43) 김승옥, 「자작해설」, 『뜨세상에 살기에』, 167쪽.

이를 위해서는 그의 여순사건 체험뿐만 아니라 한국전쟁과 4월혁명 등과 같은 다른 역사적 사건들을 비롯해서 그를 둘러싼 한국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작가의 소설적 배경이 여수와 순천이라 해도 그 표상에 담긴 의미의 층위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관여한 다양한 문학 내적, 외적 계기들이 가능한 한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알게 된 것은 김승옥의 텍스트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라 정치가 문화론적 차원에서 조명되면서 역사가 진공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위이다. 이는 이념에 대한 그의 혐오와 두려움이라는 양가감정에서 기인한다. 김승옥은 현재까지도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좌우익의 이념 모두 인간다운 삶을 억압한다는 신념 또한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문학 텍스트에서 이념을 휘발시킴으로써 여수와 순천을 정치적 공간에서 문화적 공간으로 조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이념을 소거하려는 작가의 태도는 개인의 신념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념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국가 권력은 이 시기에 무소불위의 반공 논리를 동원하여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혁신 사상을 토대로부터 철저히 붕괴시켰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치학은 자신의 사유 공간을 반공 담론의 울타리 안에 힘겹게 마련해야 했다. 이는 무한 증식하는 반공 논리 언저리에 거처를 마련함으로써 자기 보존을 피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반공 논리 내부를 비균질적으로 만들어 파열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완전한 순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작가의 글쓰기 작업이 일관되고 명징한 의식의 경로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내면서 숨기고자 하는 분산되고 모순적인 의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 의식이 금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발언하는 방법을 택하게 하였다고 평할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 논리와 자유주의 정치학이 접합될 수 있었던 것은 김승옥의 자유주의가 반공 논리와 대립각을 세울 만큼 날카롭지 않

왔기 때문이다. 이 점은 역사와 이념을 제거하는 작가의 서사 전략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자유주의 정치학에 고유한 것인 동시에 작가의 자기 검열과 그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 1-3, 문학동네, 1995.

김승옥, 『뜨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비평작업』

『자유공론』

『서울신문』

### 2. 논문과 단행본

강웅식, 「전체주의적 반공주의와 순수 참여논쟁」, 『상허학보』 제15집, 2005.8., 311-325쪽.

김낙원, 『여수향토사』, 여수문화원, 1962.

김낙원, 『여수향토사』, 여수시교육청, 1953.

김동리, 「형제」, 『백민』, 제5권 제2호, 1949.3.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김미란, 『김승옥 문학의 개인화 전략과 젠더』,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6.

김사립 편저, 『일선기자의 고백』, 모던출판사, 1949.

김진기 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의 근대적 동학1』, 한울아카데미, 2008.

김치수, 「소설에서 나타난 반공의식」, 『자유공론』 제19호, 1967.10., 194-201쪽.

김치수, 『김치수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0.

김현 외 3인, 「좌담: 4·19와 한국문학」, 『사상계』 제204호, 1970.4.

김현,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 『김현문학전집7』, 문학과지성사, 1992.

김훈, 『문학기행』, 한국일보사, 1987.

백문임 외, 『르네상스인 김승옥』, 앨피, 2005.

베에르 부르디외, 정일준 옮김,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설국환, 「반란 국도를 보고 와서」,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12 합번호, 146-156쪽.

순천시시편찬위원회 편, 『순천시사: 정치·사회편』, 순천시시편찬위원회, 1997.

유임하, 마음의 검열관, 반공주의와 작가의 자기 검열 - 김승옥의 경우, 『상허학보』 제15집, 2005.8., 129-155쪽.

유종호, 「김수성의 혁명-김승옥」, 『유종호전집1: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 이봉범,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 제15집, 2005.8., 49-98쪽.
- 임종명, 「여순 ‘반란’ 재현을 통한 대한민국의 형상화」, 『역사비평』 통권64호, 2003.가을, 304-334쪽.
- 임종명, 「여순사건의 재현과 공간」, 『한국사학보』 제19호, 2005.3., 151-185쪽.
- 임종명, 「여순사건의 재현과 폭력」,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2집, 2005.봄, 103-132쪽.
- 전국문화재단채충동맹 편, 『반란과 민족의 각오』, 문진문화사, 1949.
-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2』, 실천문화사, 1991.
- 전병순, 『절망 뒤에 오는 것』, 국제문화사, 1963.
- 전홍남, 「『절망 뒤에 오는 것』에 나타난 ‘여순사건’의 수용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 제127권, 2000.12., 339-421쪽.
- 전홍남·이대규, 「“남도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고향탐색과 공간화 전략」, 『어문연구』 제52집, 2006.12.
- 좌담, 「4월혁명과 6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최원식 임규찬 엮음,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작과비평사, 2002.
- 홍한표,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신천지』 제3권 제10호, 1948.11 12 합본호, 158-166쪽.
-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 Routledge, 1992.

## Abstract

The Yosun Incident and April Revolution,  
or Spatiotemporal Politics of Kim Seung-ok's Novels  
- Focused on Antagonistic Relationships Between anticommunism  
and liberalism -

Kim, Mi-Ran

In the childhood, Kim Seung-ok had lived in Suncheon and Yeosu, and when he grew to be a novelist, he often chose these small towns for his novels' literary places by representing them in the specific direc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ain the discursive effects of his literary choices.

In the concrete, I wanted to investigate the conflicts or antagonis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signifying method oppressed by the censorship and anticommunism and his own method as he wished to persue. For this purpose, I took the con/text-reading method because this is a effective Methodological approach to explore author's spatiotemporal politics.

And to conclude, I insisted that Yeosu and Suncheon had been political places because of the Yosun Incident before the appearances of Kim Seung-ok' novels. It means he replaced the politically signified Suncheon and Yeosu with the literary places. But this is the narrative strategy to remove the history and ideology. That's why it's the outcome of compromise of the censorship and anticommunism. (Key words : anticommunism, the Yosun Incident, censorship, liberalism, April Revolution, Yeosu, Suncheon, Spatiotemporal Politics)